

# 대설로 얼어붙은 광주...사람도 차도 '조심조심'

### 큰길 대비 골목길 등 제설 더더...잔설 위 더 쌓여 위험 사고 유발 블랙아이스도 곳곳...市 "안전사고 예방 총력"

"큰 도로는 괜찮는데 아무래도 좁은 골목길은 제설이 더디다 보니 넘어질까 겁이 납니다. 당분간 눈이 계속 온다고 해 걱정입니다."

7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골목길 양쪽에는 밤사이 내린 눈이 쌓여 있었다. 높이는 성인 발목이 묻힐 정도였다.

길 가운데 일부는 차량들이 지나면서 눈이 얼어붙어 있었고, 이를 제외한 곳은 눈이 거의 치워지지 않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바퀴 달린 장비구니를 끌던 한 어르신은 중심이 계속 흔들리는지 몇걸음 가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골목을 지나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인도도 곳곳이 얼어붙어 출근길 시민들

을 힘들게 했다.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34)씨는 "평소에는 정류장까지 5분이면 오는데, 오늘은 배 이상이 걸렸다"며 "출퇴근이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비슷한 시각 서구화정동 골목길의 상황도 비슷했다. 빗자루를 든 주민들이 집 앞을 쓸거나 제설제를 뿌려 차와 사람이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치워지긴 했으나, 영하권의 추위에 녹지 못한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라 미끄러지기 쉽다.

이 탓에 차와 사람 모두 조심스럽게 움직였으나, 블랙아이스 등에 미끄러졌는지 헛돌거나 중심을 잃는 경우가 종종 포착됐다.

힘겹게 골목길을 빠져나온 차량들은 비교적 제설이 잘 된 간선도로에 들어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7일 오전 광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김메리 기자

서면서부터 속도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눈이 계속 내리면서 잔설이

남아있던 간선도로도 얼어붙어 운전자 들은 목적지까지 거북이 운행을 이어가

야만 했다. 직장인 이모(42)씨는 "큰 도로는 좀

괜찮긴 하지만 경사가 심한 곳은 올라갈 땐 바퀴가 헛돈다"며 "타이어에 체인을 감고 조심하 운전을 해도 눈이 쌓여 있으면 소용이 없어 제설 작업이 말끔하게 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10일까지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눈은 강설 지속 시간이 길어 도로 붕괴·전도 등의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광주시는 자치구는 물론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유기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고광안 행정부시장은 "이번 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민들은 출·퇴근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실외활동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집과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성학 기자

## 참사 열흘째...폭설에 기체 잔해 수거 중단

### 무안공항 청사도 비교적 차분...국토부, 주차 차량 유족에 인계

제주항공 참사 열흘째를 맞은 7일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무안공항의 기체 잔해 수거가 이어졌다.

활주로 일대에는 현장 보존을 위한 방수포가 덮여져 있고, 그 위로 눈이 소복하게 쌓였다.

앞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소방 등 수습 당국 인력을 지원받아 기체 잔해 수거 작업을 했으며 공항 격납고에서 사고기 엔진 2개와 조종석 상부 패널 등 주요 부품의 이물질 제거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항에서는 주차장에 방치 중인 희생자들의 차량 인계 절차가 이어졌다.

현재까지 차량을 자택 등지로 옮겨 달라는 유가족의 신청은 19건 접수됐으며, 그중 10건이 견인 조치됐다.

견인 대신 여분의 차량 열쇠를 만들어 달라는 유가족의 신청은 12건 접수됐는데, 제작 소요 시간 등을 이유로 열쇠를 견내받은 유가족은 현재까지 없다.

차종마다 열쇠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나 보통 국내 차량은

2주, 수입 차량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공항 내 주차된 희생자들의 차량을 인계하는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 정보를 알지 못해도 직원들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방치 차량을 확인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무상으로 견인해주고 있다.

장래 절차로 공항을 잠시 떠난 유가족들을 위해 전날부터는 유선·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견인 신청도 접수 중이다.

활주로 인근 등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의 인계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까지 1천76개(일반 95개·전자기 125개)의 유류품이 수거됐고, 소유자가 확인된 26개가 유가족에 돌아갔다.

무안공항 청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띠었다.

이번 참사로 숨진 179명의 희생자 시신 인도가 마무리되면서 유가족과 지인들이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 공항을 잠시 떠났고, 곳곳은 날씨 탓인 공항을 오가는 차량도 줄었다. /안재영 기자

청사 1층에 차려진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이 발걸음을 하긴 했으나,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은 아니었다. 자원봉사자 등은 고요함 속에 1·2층 대합실에서 구호 물품이 담긴 상자 등을 옮겼다. /특별취재반=김상호 기자

### 캐디 추행 항소심도 징역·벌금형

골프를 치다 여성 캐디를 성추행 한 사업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9)씨 등 3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화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40대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접촉한 A씨는 피해자가 항의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도 내뱉었다. 나머지 두 명도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은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재영 기자

## 광주 남구 공무원 복무관리 '허술'

### 市 감사위, 유연근무 중 출·퇴근 누락 등 39건 적발

광주 남구 공무원들이 유연근무 중 출·퇴근 기록을 누락하는 등 허술한 복무 관리로 무더기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남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부적절한 행위 39건을 적발해 훈계 14명·주의 8명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67건의 행정상 조치, 1억5천만원 상당의 제정상 조치가

를 요구했다. 이중 남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추진 중인데 감사 결과 지난 2022년 9월부터 6월 사이 유연근무를 이용한 남구 공무원은 352명 중 222명(63.1%)이 총 출·퇴근 건수 3만2천588회 중 9천33회(27.7%)에 대해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성학 기자

이 중 3명은 유연근무 신청일수가 10(0일 이상임에도 90% 이상 출·퇴근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는 상습적인 미등록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남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분기별 복무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 해당 직원에게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 檢, 절도범 자처 마약 운반책 '징역 5년' 구형

### 던지기 수법 필로폰 2kg여 유통

검거 당시 절도범을 자처한 마약 운반책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4~11월 필로폰 2천175g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21일 오후 8시에 남구 월산동 주택가 등에서 소분 포장된 필로폰을 유통하던 A씨는 모르는 사람이 원룸에 들어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마주한 경찰에게 "물건을 훔치러 왔다"고 진술하며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체포 현장 근처에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했는데, 이 안에는 1g 단위로 소분된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 /안재영 기자

검찰은 A씨가 유통한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징역 5년과 1억6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 측은 대출·전세 사기 피해 등 계속되는 악재에 형편이 어려워져 문제가 되는 일인 줄 알고도 범행했지만, 운반 대상이 마약인지는 몰랐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장이 "불법인 줄 알고도 왜 일을 했냐"고 묻자 A씨는 "마약이 아니라 하는 지시자의 말을 믿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처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 이뤄진다. /안재영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